

## 고성군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 제기

고성 출신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 건의서 제출 ... “평창동계올림픽 때 고성군 명예 높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강원도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가운데, 한때 ‘스키의 메카’로 명성을 날렸던 고성군이 평창 대회를 계기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애슬론 경기종목 실업팀 창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도 고성군에 바이애슬론 실업팀이 창단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팀 창단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윤 · 천강훈 · 전제익 · 손성락 등 고성 출신 전·현직 국가대표 바이애슬론 선수 출신 4명은 올해 초 고성군의회에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고성군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팀 창단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고성군에 바이애슬론 실업팀이 창단될 경우 현재 전국 최강의 실력을 갖춘 고성중고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들이 장차 평창 대회에 국가 대표로 출전해 지역의 명예를 전세계에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동계 스포츠인 스키뿐만 아니라 육상, 사격, 사이클, 인라인 등 사계절 운동에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도 민체전과 전국체전 및 역전마라톤 대회에 고성군 대표로 출전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아울러 고성중고 출신으로 현재 전국 각지에서 바이애슬론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뛰어난 기량의 선수들이 실업팀 창단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간성초교나 광산초교

스키부 창단도 급물살을 타면서 스키를 통한 인구 전입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업팀 창단에 가장 중요한 우수 선수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 현재 고성중고 출신으로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올림픽출전 2명, 아시안게임 출전 7명(3명 메달 획득) 등 9명으로, 이들은 고성군에 실업팀이 창단되면 언제든지 고향에서 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고성중 3학년 윤철규 선수 등 현재 고성중고에서 바이애슬론을 하고 있는 학생 선수 9명까지 합치면 모두 21명의 우수한 선수층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바이애슬론은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종목이다. 우리나라

동계스포츠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바이애슬론은 2010 밴쿠버 대회에서 문지희가 63위에 그친 것이 최고 성적일 정도로 열악한 종목이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키워야할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지역 스키인들에 따르면 창단 예산으로 약 2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매년 1억5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면으로 이어짐



고성중고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바이애슬론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고성군민문화상 수상자 ☞ 9면  
 수성문화제 행사 안내 ☞ 10면



### “언제나 농업인과 같이하는 농협”

농업인이 농협의 50년을 만들었습니다. 농협이 농업인의 50년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은 물론,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까지- 앞으로도 농협은 이 땅의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고성지역 농협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9월 22~24일, 고성종합운동장 일원

-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지부장 박 상 기
- 거진농협 조합장 김 정 만
- 금강농협 조합장 최 학 철
- 토성농협 조합장 김 명 한

